

죄로 굳어진 영혼의 각성

사무엘하 12장

오늘 우리는 ‘다윗의 생애’ 시리즈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빈 목사님께서 사무엘하 11장, 다윗과 밋세바 이야기를 설교하시면서 12장 일부도 다루셨습니다. 오늘 저는 그 설교를 바탕으로 사무엘하 12장에서 다윗과 나단 사이의 대화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몇 주 전, 한 친구가 저를 초대해서 불에 구운 후 오래 천천히 조리한 양고기 로스트(사진)를 대접해 주었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맛이 훌륭해서, 그 순간은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도 우정, 양고기 로스트, 그리고 즐거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죄로 인해 굳어지고 타버린 영혼을 어떻게 깨우실까요? 죄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태도, 생각, 의도, 또는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굳어진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깨우실까요?

지난주 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 왕이 중심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는 가장 신뢰하던 부하 장수 중 한 명인 우리야의 아내 밋세바를 보고 욕망을 품습니다. 다윗은 우리야가 자기 대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사자를 보내 그녀를 데려오게 하고, 밋세바와 간음을 저질렀습니다.

밋세바가 임신하자,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불러 집으로 돌려보내어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그의 아이라고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야는 전쟁 중인 전우들에게 충성을 다해 아내와 동침하지 않겠다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다윗은 우리야를 다시 전쟁터 최전선으로 보내 죽도록 계획을 꾸밉니다. 우리야가 전사한 후, 밋세바가 남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지나자, 다윗은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아내로 삼아, 이미 많은 후궁 중에 하나로 추가합니다.

다윗 왕은 십계명 중 최소한 일곱 가지를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가 감춰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하루 이틀이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거짓의 그물 속에서 살았습니다.

- a. 밋세바의 남편 우리야는 전쟁 중에 ‘우연히’ 전사했다.
- b. 그는 합법적으로 과부를 아내로 맞이했으며, 간음을 저지르지 않았다.
- c. 밋세바는 ‘마침’ 그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가 하는 말입니다. 시편 10편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0편 11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 나이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 왕이 이야기를 주도하다가, 27절에 이르러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치매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 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다윗은 밋세바와 간음하는 데서 쾌락을 느꼈지만,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일을 아시고 기뻐하지 않으 셧습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셨지만, 부재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7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라.

여호와께서는 다윗이 한 모든 일을 보셨습니다 — 그의 마음의 의도, 그의 간계, 그리고 그의 행동까지. 그렇다면 하나님은 죄로 굳어진 마음을 어떻게 깨우실까요?

1. 주의 말씀: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사무엘하 12장은 여호와와 그의 말씀이 중심을 이룹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때에 다윗을 찾아오십니다. 다윗이 간음을 저지른 지 최소 9개월 후, 아마도 밋세바가 아기를 낳는 바로 그날, 선지자 나단이 다윗의 문 앞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개입하시는 은혜입니다. 나단은 다윗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 여 호와께서 보내신 사람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면, 다윗은 죄 가운데 계속 머물렀 을 것이고, 결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거의 1년 동안 자기 죄를 숨긴 채 비참하게 살아왔습 니다. 만약 다윗이 그 해를 잘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시편 32편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1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 3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하므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 4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 같이 되었나이다

다윗은 모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밤잠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단을 보내신 것은 놀라운 은혜의 행 동이었습니다. 나단은 이스라엘 왕국 사법 재판소의 최고 재판장이었던 다윗에게 법적인 사건을 가져 온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유'였습니다. 비유란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이야기 속에 진리

를 담아내는 것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깨닫기 전에 이야기에 빠져들게 하며, 그 이야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 비유를 살펴봅시다. 한 부자는 많은 재산과 큰 양 떼와 소 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난한 사람은 어린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 어린 양을 자기 자녀들과 함께 키웠습니다. 그 양은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셨고, 그의 품에 안겨 잠들었으며(마치 여인이 남자의 품에 안기는 것처럼), 그에게는 딸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히브리어로 ‘밧세바’는 ‘서원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어느 날 나그네가 그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자기 양 떼에서 잡아 대접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난한 사람의 어린 양을 빼앗아 손님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밧세바를 빼앗은 것과 같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환대 문화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어겼습니다.

다윗은 크게 분노하며 이야기를 끊고 말합니다. 그는 그 부자의 냉혹한 잔인함을 간파했습니다. “그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가 이런 일을 행하고 아무 긍휼도 베풀지 않았으니, 반드시 네 배로 갚아야 한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 이 벌칙을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정의에 마음을 두었지만, 비유 속 부자를 정죄함으로써 사실상 자신을 정죄한 셈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남을 판단하다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은 스스로 올라미 속에 머리를 깊이 들이밀었습니다. 나단이 해야 하는 것은 그가 누구인지 말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다윗을 왕자나 왕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으로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나단의 심정을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그는 왕국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단은 열정적으로 동의했던 친구였습니다.

그러나 나단은 다윗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더 충성했습니다. 7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지 못할 것과,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세우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그는 책망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진정한 친구라면 다윗의 죄를 묵인하지 않고, 직면하게 할 것입니다. 나단은 진실을 말하는 용감한 친구였습니다.

잠언 27장 6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여러분에게 나단 같은 친구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친구입니까? 우리는 혹시 친구의 죄를 직면시키지 않고 묵인하며 죄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 12장 7-8절을 보면 다윗이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한 후,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자신의 은혜를 완전히 무시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

- a. 명예 —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었다.
- b. 보호 — 내가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 c. 소유 — 내가 사울의 집을 네게 주었다.
- d. 권세 —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네게 주었다.
- e. 약속 — 내가 이보다 더 많은 것도 너에게 주려고 준비하고 있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아, 나는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는 자다(출애굽기 34:6).

9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와 말씀의 약속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어찌하여 네가 나와 나의 말을 철저히 멸시하였느냐?”

우리는 9절과 10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이 구절들은 사무엘하 전체의 문학적, 역사적, 신학적 중심입니다. ‘여호와와 말씀의 약속을 멸시한다’는 것은 곧 ‘여호와와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와 말씀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 신뢰하며, 순종하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친구의 조언을 통해서, 적절한 때에 주어지는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흔한 방법은 날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노출하는 것입니다.

2011년, 캐나다와 미국에서 Transformation Discipleship Assessment라는 대규모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5,000명의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충성된 제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까요?

1위는 놀랍게도, 정기적으로 성경을 읽는 단순한 습관이었습니다.

살아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형성하고, 도전하며, 교정하고, 영감을 주도록 허락하는 것 말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졌던 것보다 훨씬 많은 분량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그것에 자신을 노출시키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것을 신뢰합니까? 순종합니까? 아니면 책장 위에 올려두고 방치하며 멸시하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선지자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웠습니다.

9절. 네가 칼로 헛 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아, 너는 왕으로서 권력자들의 학대로부터 백성을 보호해야 했다. 그런데 너는 나에게 중대한 죄를 지었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 너는 권력을 가진 자로서 밋세바를 빼앗고, 그녀의 남편 이자 네가 가장 신뢰하던 장수 중 한 명이었던 우리야를 죽였다. 그리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 사실을 덮으려 했다.”

그렇다면 다윗의 행동에 대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정당한 형벌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이번 달 보름 전날, ‘철갑상어의 달(Sturgeon Moon)’이라 불리는 날에 저는 친구들과 함께 철갑상어 낚시를 갔습니다(사진). 저는 행복했고, 낚시를 즐겼습니다. 철갑상어는 멸종 위기종입니다. 만약 잡으면 즉시 강으로 다시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제 친구 중 한 명이 어리석게도 이렇게 물었습니다. “만약 철갑상어를 가져가면 벌금이 얼마예요?” 가이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잡하면 낚시 장비 전부, 배, 그리고 낚시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배의 가치는 약 20만 달러였습니다!

나중에 온라인으로 찾아보니, 철갑상어를 잡아가면 최대 3년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고기 한 마리 때문이에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철갑상어가 그렇게 귀한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까요?

사무엘하 12:10-14에서, 다윗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긴 것에 대해 처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칼이 그의 집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세 아들 — 암논, 압살롬, 아도니야가 칼에 의해 죽음)
- b. 그의 집안에서 악이 일어날 것이다 (아들이들이 그의 권위에 반역함)
- c. 그의 이웃이 그의 아내들을 대낮에 취할 것이다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서 다윗의 첩들과 동침함)
- d.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것이다

이것이 너무 가혹한가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어떤 값을 치러야 할까요?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조차 간음과 같고, 마음에 품은 분노도 살인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 그들의 소유를 탐내는 마음, 이웃을 판단하는 마음, 그들에 대해 최악을 가정하는 생각, 다른 이의 부정적인 평판에 동조하는 태도, 그리고 그들을 비방하는 혀는 어떤가요?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의 혀가 ‘치명적인 독’으로 가득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반응하라고 하실까요?

2. 주의 기대: 회개하고 회복돼라

약 한 달 전, 몬트리올에 있는 제 손자 레온이 하루를 마무리하며 제 딸, 즉 그의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은 힘든 하루였죠? 우리 오늘 많은 것들에 대해 의견이 안 맞았어요. 그래도 우리 여전히 서로 사랑하죠?”

저희 손자의 말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는 방식과 비슷하지 않나요? “주님, 오늘은 힘든 하루였습니다. 제 생각과 행동을 보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주님과 저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번 당신의 말씀과 반대로 행동했지만, 그래도 우리 여전히 서로 사랑하죠?”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을 때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탓했습니다(사무엘상 13:11-12; 15:13-21). 그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잠언 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언 17:10

한 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백 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충고, 교정, 책망을 거부합니다. 그는 항상 옳고, 항상 오해받으며, 절대 잘못이 없고, 늘 피해자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첫 반응은 무엇이었을까요?

13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의 고백은 단순하고, 핵심을 찌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거나, 변명하거나, 정당화하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나단의 책망에 대한 반응으로 다윗이 기록한 시편 51편 4절에서 그는 이렇게 씁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죄의 핵심에 집중합니다. 그는 우리아와 밋세바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가 반역한 대상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반역하지 않았다면, 그는 간음과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회개를 비웃습니다(잠언 14:9).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을 낮추며, 진심으로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제자도 변혁 평가(Discipleship Transformation Assessment)’라는, 신실한 제자를 만드는 요소를 연구한 대규모 조사에서, ‘고백과 회개’는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제자로서 성숙해지고 복음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매일 회개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시편 15편을 읽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사람에게 대해 원망, 분노, 비판적인 태도를 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어리석은 자가 될까요, 아니면 회개하고 변화할까요?
다윗이 회개하자마자 주님도 곧바로 용서하셨습니다 — 압도적인 은혜입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의 다윗에 대한 심판은 엄격하지만 동시에 자비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다윗은 그의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합니다. 그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셨을까요? 답은 하나뿐입니다.

출애굽기 34:6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죄의 결과를 없애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태도는 어리석은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실행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3. 주의 공의: 복종하고 예배하라

다윗과 밋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병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자기 집에서 자신을 낳추었습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이를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예배하고, 기도하며, 금식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은 그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나단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유아 사망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과도하게 슬퍼하는 걸까요? 신하들이 그를 땅에서 일으키려 했지만, 그는 거부했습니다. 아이가 회복되는 것이 음식, 편안함, 체면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아이를 살려 달라고 간구하며, 혹시라도 주님이 마음을 바꾸실까 희망했지만, 예언된 대로 그 아이는 이름도 지어지기 전인 7일째 되는 날에 죽었습니다. 신하들은 다윗이 아들의 죽음을 듣

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했습니다. 스스로 해를 입히지 않을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깨끗한 옷을 입고, 집을 나와 성막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간 것입니다.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음식에 대한 욕구보다 컸습니다. 그는 주님의 임재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시편에서 썼듯이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시편 16:11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의 신하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21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이까 하니”라고 신하들이 다윗에게 물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22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 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23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은 생사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신 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은혜로 의로운 심판을 거두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단의 예언의 말씀을 주권적으로 이루셨을 때,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영원 속에서 그는 다시 아들을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습니다.

또한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다윗은 계속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죄로 정의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죄를 평생 자책하며 빠져 살도록 원하는 쪽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으로 부르시고, 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4. 주의 은혜: 받아들이고 기뻐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분께 위로를 받은 다윗은 이제 아내 밋세바를 위로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로 그들에게 또 다른 아들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그의 평화이시다” 혹은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하나님과의 화목과 하나님의 임재로의 회복에 대한 감사의 기도입니다.

다윗과 밋세바는 자신들의 모든 자녀가 저주를 받을까 걱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주님은 다시 한번 그의 친구 나단을 은혜롭게 보내셨습니다. 나단은 다윗을 지지하고, 그의 죄를 직면하게 하며, 격려하는 친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주님은 그들의 아들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셨습니다.

24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25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아들의 이름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즉 ‘여디디아’라 하기로 하셨습니다. 여디디아와 다윗의 이름은 같은 어근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을 차기 ‘다윗’, 즉 사랑받는 아들로 왕이 될 자로 세우셨습니다.

이 아들과 그의 혈통으로부터 결국 메시아가 오실 것입니다(마태복음 1:6). 이는 이 가문이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가문은 심각하게 결함이 있지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모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로마서 3:10-11

10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11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로마서 3:23-24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요한일서 1: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용서와 회복으로 가는 길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직면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며,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과과의 관계 속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길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으며, 처음 하든 천 번째 하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묵상과 기도 :시편51

- 1 하나님이며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 10 하나님이며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2)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